



브리핑을 받고 있는 柳국장 (사진 : 전열 우단)

보사부 柳元夏 보건국장 寄協방문

지난 7월 1일자로 취임한 柳元夏보건국장이 9월 10일 元奉必만성병과장을 대동하고 본협회를 초도순시 했다.

徐丙高회장의 안내로 林漢鍾이사등 협회 간부진들의 소개에 이어 회장실에서 安商玉 상무이사로부터 寄協및健協의 연혁과 사업 소개 현황을 브리핑 받았다.

이어 청사내부 시설및 검사장비 그리고 현황등을 시찰하면서 본협회 간부진과 실무자들의 노고를 격려 치하했다. 柳국장은 앞으로 寄協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고 초도 순시를 끝마쳤다.

“검소한 추석 보내기 운동”

표어·입간판등 전시

寄協 및 健協은 검소한 추석 보내기 운동에 앞장섰다.

전직원에 대하여 검소한 추석 보내기 운

동에 대한 정신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홍보활동으로는 청사내에 표어붙이기와 현판 앞에 입간판을 설치하였다.

또한 불우한 이웃에게 정성어린 위문품을 전달하였으며 공직자로서의 자세와 검소한 추석보내기 자체 지도 점검활동에 앞장섰다.



간의 노고를 치하하는 감사패를 전달했다.

李起春씨는 1947년 6월 15일생으로 1974년 保社部에 들어와 1980년도부터 만성병과에서 근무해오면서 기생충 퇴치사업에 지대한 공로를 세우고 1985년 7월 13일에 보건교육과로 전보발령됐다.

현재는 보건교육과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국민교육을 활성화시키는데 그에 대한 기대가 큰 바 있다.

李起春씨에게 감사패전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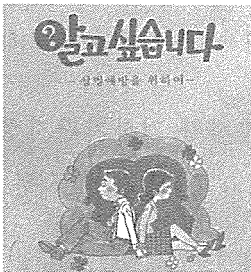
— 寄協 徐丙高회장이 9월 4일에 —

寄協 徐丙高 회장은 지난 9월 4일 寄協 회장실에서 보건사회부 만성병과에 1985년 5월까지 9년간 근무해온 李起春씨에게 그

李起春 씨는 1983년 모범공무원수상의 보사부장관상 3 회를 수상했으며 모범 공무원으로 타의 모범이 되어왔다.

성병 계몽용 책자 발간

— 보건사회부에서 —



보건사회부는 지난 7월에 성병홍보용 책자 "알고 싶습니다"를 발간했다. 성병예방사업을 범국민적인 사업으로 전환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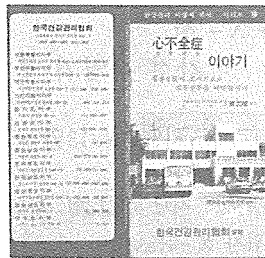
물론 성병의 실상위해, 예방법 등을 주내용으로 알기쉽게 제작된 책자이다.

한편 寄協은 성병계몽용 책자를 각 시도부에 배포함과 동시에 건강소식에 게재하여 독자들에게 성병의 위해도를 홍보하고 있다.

健康시리즈 제 10집

심부전증 이야기 펴내

健協 홍보실



健協은 지난 9월 건강관리시리즈 제10집 심부전증 이야기를 제작 전국 13개 시도지부에 배부했다.

한편 이번 제10집 심부전증이야기는 서울 의대 최윤식박사가 감수했다.

또한 제11집으로 뇌졸중이야기를 제작하여 국민보건 계몽사업의 중요한 홍보자료로서 사용할 예정이다.

위생분야종사자 건강진단 의료기관으로 지정

—健協대구직할시지부—



健協 대구직할시지부는 보건사회부령 제 754호 위생분야 종사자들의 건강 진단 규칙 제 7조의 규정에 의거 9월 11일자로 위생분야 종사자 건강 진단 의료기관으로 지정됐다.

지정된 항목으로는 위생분야 종사자들의

건강 진단 규칙 제 3조에 의거 혈청검사 및 에스.티.디 검사와 소화기계전염병 결핵 간염병 결핵 간염검사등이며, 운영사항으로는 위생분야 종사자 건강 진단 수첩을 발급하며 진단실적을 익월 5일까지 관할 보건소 장에게 통보하는 등의 운영사항이 있다.

경기도지부 X-선

간접 촬영기 구입

— 지난 7월 13일 —

健協경기도 지부는 지난 7월 12일 사업장 신체검사 및 내원자 X-Ray 촬영(간접촬영)에 필요한 X-선 간접 촬영기를 도비보조금 1천백 9십만원을 지원 받아 구입했다.

이번 X-Ray의 확보로서 근로자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받은 경기도지부는 사업장 근로자의 신체검사 및 내원자들에게 X-Ray

촬영이 가능하여 새로운 사업으로서 기대가 크다.

위생분야종사자 검사기관 지정

—健協 인천지부—

健協 인천직할시지부는 지난 4월 13일 차로 의료보험법 제 7조에 의거 인천직할시 남구지역(성병검진) 진료지구 위생분야 종사자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았다.

이로 인하여 健協은 성병검진 및 진료기관으로 지정된 지부는 인천, 충북, 전남, 부산, 강원 등 총 5개 지부로 됐다.



寄協 본부 주소 변경

강서구 화곡동 1097번지로

寄協은 급번 서울특별시 조례 제2016 호

(85. 9. 1)에 의거 법정동및 지번이 변경됐다. 변경된 주소는 (구) 서울시 강서구 등촌동 602-1번지에서,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 1097번지로 변경되었다.

천사의 집 방문

중추절에 불우이웃돕기



지난 9월23일 기협및건협은 仲秋節을 맞이하여 불우이웃돕기운동의 일환으로 기협과 자매결연한 강서구 화곡동 소재「천사의 집」을 방문했다.

이번 천사의 집 방문에는 약간의 기념품

및 선물을 전달하여 자매결연 어린이들을 즐겁게 하기도 했다.

이곳을 방문한 韓相普감사실장은『김만수 군에게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건강하고 씩씩하게 자랄것을 당부하고 격려했다.

〈사진 : 협회와 자매결연한 심웅영군〉

근로자 건강진단 기관으로 지정
경기도, 전라남도지부

健協 경기도와 전라남도지부는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 규정중 노동부 예규 제108호 (84. 12. 27)에 의거 근로자 건강진단실시 기관으로 인정되었다.

이로인해 健協 경기도와 전라남도지부는 근로자 건강 진단을 할수 있는 기관으로 지정됐다.